Symphony No. 6 in E♭ minor, Op. 111

- □□

정보

개요
곡명: 교향곡 제 6번 E♭단조, Op. 111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Sergei Prokofiev, 1891–1953)
작곡 시기: 1945–1947년
초연: 1947년 10월 11일, 레닌그라드 필하모니아 대홀. 예브게니 므라빈스키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구성: Allegro moderato–Largo–Vivace의 3악장
소요 시간: 약 42–45분

Prokofiev.org 보존 카탈로그 · Boosey & Hawkes 작품 정보 · Wise Music Classical 작품 페이지 · IMSLP

악보 ·서지

교향곡 제 6번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표면보다 승리 뒤에 남은 상실과 불안을 오래 응시하는 작품으로 자주 해석된다. BIS와 Cal Performances의 라이너 노트가 네스티예프의 회고를 통해 전하는 프로코피예프의
설명도, 기쁨과 함께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발언은 제 1악장의 그림자, 제 2 악장의 긴 노래, 제 3악장의 불안한 밝음을 하나의 궤적으로 묶어 주지만, 작곡가의 자필 프로그램으로 직접 확인된 문장은 아니다.

제 5번 뒤에 놓인 작곡

1945년 제 5번 교향곡이 공적 승리와 인간 정신의 힘을 크게 내세웠다면 , 제 6번은 그와 다른 표면을 선택한다. 출판사와 기관 해설은 이를 제 5번과 대비되는 후속 교향곡, 또는 승리의 이면을 묻는 작품으로 설명한다. 이 대비는 작곡가가 제 6번에 ‘제 5번의 어두운 쌍둥이 ’라는 공식 별명을 붙였다는 뜻이 아니라, 두 작품의 청취 경험을 연결하는 해설자의 프레임이다 .

프로코피예프는 제 5번 초연 직후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간 두통과 무력감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전쟁의 집단적 상처와 작곡가의 개인적 몸 상태가 같은 시기에 겹쳤다는 사실은 작곡 조건을 보여 주지만, 제 6번 전체를
자전적 병리의 음악으로 단정할 근거는 아니다. 공식 카탈로그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작곡 연대는 1945–47 년이다.

초연과 수용의 단절

1947년 10월 11일 레닌그라드 필하모니아 대홀에서 레닌그라드 필하모닉과 므라빈스키가 초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아가 보존한 당시 신문 보도는 10월 11·12일 시즌 개막 공연을 함께 다루며, 제 1

악장의 오보에 선율과 느린 악장의 관조, 피날레의 두 주제를 구체적인 청취 지점으로 꼽는다. 초연에는 큰 박수가 있었고 1947년 12월 모스크바 공연도 빠르게 매진되었다는 후대 기록이 있다. 레닌그라드 초연을 11월로 적는 일부 페이지와 달리, 날짜는 보존 카탈로그·악보 메타데이터·동시대 보도의 교차 근거가 강한 10월 11일을 따른다.

1948년 2월 당 중앙위원회 결의와 즈다노프 계열의 형식주의 비판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BIS와 Cal Performances는 제 6번이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고 '형식주의적'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소련에서 여러 해 다시 연주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초연의 호의적 반응과 이후의 연주 공백은 한 사건의 상반된 평가가 아니라, 1947년과 1948년 이후라는 서로 다른 수용 시점이다.

편성·시간

편성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E♭ 클라리넷,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우드블록·탬버린·트라이앵글·작은북·심벌즈·큰북·탐탐, 피아노, 첼레스타, 하프, 현악이다. LA Phil의 일부 약호는 피아노와 첼레스타를 묶어 적지만, 악보·출판사 목록은 두 악기를 따로 제시하므로 여기서도 분리한다.

출판사와 기관의 예상 시간은 42–45분이며, 특정 녹음은 약 42분에서 45분까지 벌어진다. 악장별 14분 19초·15분 52초·11분 55초 같은 값은 BIS 한 녹음의 트랙 시간이지 악보의 고정 분량이 아니다. 초판은 IMSLP 메타데이터에 따라 1949년 런던 Anglo-Soviet Music Press에서 나왔다.

I. Allegro moderato

첫 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긴 호흡을 취하지만, 주제가 안정된 행진처럼 자라지 않는다. 낮은 현악과 무거운 금관의 어두운 시작 뒤에 떠도는 선율이 나타나고, 애틋한 목관의 음형은 갑자기 절망적인 폭발로 바뀐다. 출판사 해설은 이 악장을 불안하고 엄격하며 때때로 서정적인 성격으로 요약하고, 동시대 레닌그라드 평론은 오보에의 넓은 선율을 특히 들었다.

프로코피예프의 제 1악장이 특정 전투 장면을 묘사한다는 문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주제가 성격을 바꾸며 전진하고 낮은 음역의 압력이 되돌아오는 과정은 전후의 불안과 상처를 연상시키는 청취 틀을 제공한다. 피아노·첼레스타의 차가운 빛, 반음계로 흔들리는 관현악 층, 무거운 금관의 간헐적 개입이 이 악장의 긴장을 만든다.

II. Largo

가운데 악장은 긴 노래와 불안정한 가장자리가 함께 있는 느린 악장이다. 프로코피예프가 이 악장을 더 밝고 노래하듯 설명했다는 전승처럼, 목관과 현악의 선율은 잠시 피난처를 열어 둔다. 그러나 기관 해설과 후대 비평은 그 선율을 여러 겹의 불협화음이 감싸며, 네 호른의 칸틸레나조차 영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 악장을 단순한 전쟁 애가로 고정하면 노래하는 밝음과 경계하는 관조가 사라진다. 오보에·바순·현악의 긴 프레이즈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화성은 쉽게 정착하지 않으며, 위로의 가능성이 곧 불안 속으로 돌아간다. 제

2악장의 정서적 의미는 작곡가의 고정 표제라기보다 출판사 ·기관 해설과 연주자가 제공하는 청취 관점으로
남겨 둔다.

III. Vivace

피날레는 빠르고 민첩한 표면으로 시작한다. 클라리넷과 목관의 날카로운 움직임, 저음의 점음표 리듬, 두 개의 대비되는 주제가 익살스러운 달리기와 넓은 노래를 번갈아 만든다. 이 밝음은 제 1악장의 무게를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BIS와 Hyperion 해설은 피날레의 일부 재료가 앞 악장의 불길한 삽입구에서 파생되고, 마지막에 제 1 악장의 주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장조의 빛으로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해피엔딩이라 부를 수 없다. 빠른 흐름이 위협적으로 뒤틀린 뒤, 오보에 ·바순의 꿈꾸는 듯한 선율과 두 차례의 큰 관현악 외침이 비극적 기억을 회복한다. 마지막에는 밝은
음향의 종지와 돌아온 어둠이 동시에 남는다. Tchaikovsky의 Pathétique와 비교하는 해설도 있지만, 이는 영향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후대의 청취 프레임이다 .

연주 해석의 초점

므라빈스키의 1947년 초연을 다룬 러시아 보도는 제 6번의 복잡성이 청중에게 닿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새 악보의 선율과 구조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의 연주에서는 제 1악장의 어두운 압력과 제 2 악장의 노래를 어느 정도의 긴장으로 연결할지, 피날레의 민첩함이 언제 위협으로 바뀌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빠른 템포만으로 피날레를 가볍게 만들면 마지막 회귀가 무뎌지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무겁게 밀면 Vivace의 기민함이 사라진다.

이 교향곡의 ‘전후 상처 ’는 특정 악기에 일대일로 배정된 표제가 아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낮은 현의 압력, 피아노 ·첼레스타의 차가운 색채, 호른과 목관의 긴 호흡, 타악기의 갑작스러운 섬광을 하나의 기억
곡선으로 조직한다. 각 녹음의 템포 ·음향 ·잔향이 그 곡선을 다르게 드러내므로 , 어느 하나를 유일한 정답으로 고르기보다 악장 사이의 회귀를 비교해 듣는 것이 좋다.

주요 자료

Prokofiev.org 작품 카탈로그 보존 페이지

Boosey & Hawkes, Symphony No. 6

Wise Music Classical, Symphony No. 6

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해설

IMSLP, Symphony No. 6 Op. 111

Hyperion Records 해설

BIS-1994 Andrew Huth 라이너 노트

Cal Performances/Mariinsky 프로그램 노트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아 보존 보도